‘청년불교시대’ 창간 축사

‘청년불교시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불법홍포를 위한 언론매체로 발전하길 기원 드립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미래 한국불교의 재원인 청소년, 대학생, 군 장병 등 젊은 불자 양성과 포교를 위해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것은 큰 원력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동안 대불련은 30만 명의 지성인 불자들을 배출해 내는 등 불교인재양성의 요람으로서 그 역할을 다해 왔습니다.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불교 재건에 나선 것도 바로 이런 사명감과 시대적 소명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종단은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 등 계층 포교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종책을 펴 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찰과 불자들의 관심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불련 총동문회가 청년불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것은 참으로 반갑고 기쁜 일입니다.

‘청년불교시대’는 포교지로서의 역할과 더불어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청년불자간 네트워크 구성과 전국에 흩어져 있는 대불련 총동문회원 간의 소통과 소속감을 이끌어내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물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이 있겠지만 우리 청년불자들의 투지와 패기라면 충분히 극복해 내리라 믿습니다.

‘청년불교시대’가 불교중흥의 한 축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해 주리라 기대하며, 아울러 불교포교지로서의 사명에도 충실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년불교시대’를 창간한 대불련 총동문회의 원력과 정진에 다시 한 번 격려를 보내며 나날이 발전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장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